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TEL : 02)718-7900 / H·P : <http://krema.kr>

보도자료

2019년 10월 15일

(표지포함 : 총 3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수 신 : 각 방송·언론사 기자(사회부, 환경부)

배포 일시 : **2019년 10월 15일 0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각, 매립업체 **“쓰레기 산 처리”** 발 벗고 나섰다.
- ◇ 정부 재활용 방치폐기물처리 **고통분담** 일환
- ◇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 더미 방관할 수 없어
- ◇ 업계로도 처리 요구 갈수록 늘어
- ◇ 비대위 결성 — 정부와 호흡 맞춰 우선 처리기로

작년과 금년 전국을 뒤덮은 ‘쓰레기 산’을 처리코자 민간 소각·매립업체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박무웅),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이민석),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안병철)은 최근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가 금년 말까지 재활용 방치폐기물 전량처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전국 57개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과 20개의 매립시설을 최대한 가동하여 정부와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일조기로 하였다.

비대위는 재활용 방치폐기물이 집중되어있는 경상북도 일원에 업체와 장비를 우선 투입기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망신으로까지 비취진 ‘의성 쓰레기 산’과 문경에 십수년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업체들을 집중 투입하여 연말까지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기로 하고 10월 14일부터 본격처리를 시작하였다.



◆ 의성군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소각업체 차량들이 실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성 쓰레기 산을 비롯한 재활용 방치폐기물 성상 대부분이 폐토사와 불연물이 40%이상 혼합되어 있어 운반과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 예산 또한 충분치 않아 업체들이 공익 차원에서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완도, 영천, 포항, 제주 등에 버려져있는 재활용 방치폐기물들도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분산처리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어 연내까지 상당량의 폐기물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대위는 타 지역에서 반입되어 버려진 폐기물을 해당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심해 예산 확보가 안된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장비를 투입기로 하여 비용보다는 주민 고통 조기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민간처리시설의 특성상 기존 산업체의 폐기물들도 매일 처리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허가받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금번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월 27일 환경부와 재활용 불법·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고통분담은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